

다니엘서 - 제154번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 이해: 벨드사살의 의의와 예언의 베일이 벗겨짐

Jeff Pippenger

2024-03-23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은 그 책의 마지막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 장 가운데 첫 장과 마지막 장은 다니엘의 체험을 밝히고, 가운데 장은 가짜 북방의 왕의 최후의 흥망을 다루는 예언적 역사를 제시한다. 첫 장은 마지막 장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장은 가짜 북방의 왕의 반역을 나타낸다.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 히데겔 강의 환상은 진리이신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을 지니고 있다.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1절부터 시작하겠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는데, 그 일은 참되나 정한 때는 오래 후의 일이었다. 다니엘은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을 이해하였다. 다니엘 10:1.

이 구절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담겨 있다. 첫째는 다니엘의 이름인 "벨드사살"이다.

내시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 하며,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다니엘 1:7

다니엘은 1장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의 마지막 환상이 소개될 때까지 다시는 '벨드사살'로 지칭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첫 번째와 마지막 증언에서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다. 예언에서 이름의 변화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상징한다. 주께서 아브람과 사래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셨다. 또한 주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마지막 때의 언약 백성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시온을 위하여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는 쉬지 아니하리니, 그의 의가 밝음 같이 드러나고 그 구원이 타는 등불 같이 나타날 때까지. 이방 민족들이 네 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지어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이사야 61:1, 2.

그분은 말세의 십사만 사천인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도 이 약속을 하신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그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 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내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12, 13.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하며, 아브라함과 사라, 이스라엘과는 달리 '벨드사살'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마지막 때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름은, 그분이 그 이름을 주시는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을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규정하지만, 실제 이름은 인침이 있을 때까지 숨겨져 있다.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는데, 그곳은 인이 기록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서 있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요한계시록 14:1

다니엘은 1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벨드사살이라 불리는데, 이로써 자신을 첫째 천사의 운동과 셋째 천사의 운동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1장은 앞서 다른 글에서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10장은 셋째 천사의 운동과 말세의 언약 백성을 대표한다. 그 구절은 이어 1989년에 시작된 개혁 운동에서 봉인이 풀리며 드러난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는 자들의 상징으로 벨드사살을 지목한다. 이는 다니엘(벨드사살)이 무엇을 알았는지에 대한 강조로 나타난다.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계시된" 그 "thing"을 알고 있는 자로 소개되며, "그 thing은 참되었으나 정한 때가 길었고, 그가 그 thing을 깨달았으며 또 그 환상을 깨달았더라"고 한다. 다니엘은 그 "thing"도, 또한 "그 환상"도 이해했다. 히브리어 "dabar"는 그 구절에서 "thing"으로 번역되지만, 그 뜻은 "말씀"이다. 예언적으로 그 "말씀"은 "일곱 때"의 환상을 가리킬 뿐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도 가리킨다. "일곱 때"와 그리스도도는 모두 건축자들이 버린 반석이며, 다니엘은 말씀 상징의 두 요소를 모두 이해하는 백성을 대표한다.

다니엘 9장 23절에는 다니엘 8장 13절의 질문과 14절의 대답으로 제시된 2,300년과 2,520년의 시간 예언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를 찾을 수 있다. 그 질문은 이렇게 묻는다. "이교와 이어서 교황권에 의해 이루어진 성소와 군대의 짓밟힘을 가리키는 'chazon' 환상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 짓밟힘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의 성취로서 2,520년 동안 지속되었다.

13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천삼백 년까지였고, 그때 짓밟혀 온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며, 이천삼백 년의 "mareh" 환상이 두 가지 시간 예언을 서로 연결한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가브리엘은 두 환상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다니엘을 이끌고 있다.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려왔고, 내가 네게 알려 주려고 왔느니라; 너는 크게 사랑을 받은 자라. 그러므로 이 일을 깨달아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 다니엘 9:23.

그 구절에서 "understand", "consider"로 모두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biyn"이며, "마음속으로 구별하다"를 뜻한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the matter"와 "the vision"을 마음속으로 구별하라고 알린다. 그 구절의 "vision"은 히브리어 "mareh"이며, 1844년 10월 22일에 끝난 2,300년의 환상을 가리킨다. "matter"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10장 1절에서 "thing"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그것은 히브리어 "dabar"이며, 마찬가지로 1844년 10월 22일에 끝난 2,520년의 환상을 가리킨다.

10장 1절에서 말세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벨드사살로 대표되며, 그들은 끝의 때인 1989년에 도래한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첫째 천사의 운동의 밀러파가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던 두 환상의 연관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절에서 '그

일'로 표현된 예언은 두 예언 가운데 가장 길다고 식별되는데, 이는 그 절의 '그 일'에 대한 두 차례의 언급 사이에 놓인 진술에서, 다니엘이 그 '일'(the dabar)에 정해진 때가 그 환상(mareh)에 비하여 '길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나 정한 때는 오래인즉 그가 그 일을 깨달았고 또 그 이상을 깨달았더라.
다니엘 10:1

밀러파가 선포한 가장 긴 기간 예언이 '일곱 때'라는 미묘한 진리라는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며 곡해한 한 구절을 근거로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에 의해 부인된다. 1863년의 반역에서 '일곱 때'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두 예언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다음 구절을 이천삼백 년을 가리키는 것으로밖에 보지 못하거나, 혹은 그렇게 보려 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제자들의 경험은, 그분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한 이들의 경험과 서로 상응하는 바가 있었다. 제자들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러 나아갔던 것처럼, 밀러와 그의 동료들도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길고 마지막 예언 기간이 곧 끝나려 하며, 심판이 임박했고,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때에 관한 제자들의 선포는 다니엘 9장의 칠십 이레에 근거한 것이었다. 밀러와 그의 동료들이 전한 메시지는 다니엘 8장 14절의 이천삼백 주야의 종결을 알리는 것이었고, 그중 칠십 이레는 그 일부를 이룬다. 양측의 선포는 모두 동일한 위대한 예언 기간의 서로 다른 부분이 성취된 데 근거하고 있었다. 대쟁투, 351.

이 마지막 대목에 내재된 논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는 밀러파가 정결하게 될 성소를 하늘 성소라고 생각했다고 세상에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 자신도,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려는 누구든지, 밀러파가 정결하게 될 성소를 땅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가 자기 파멸을 자초하도록 왜곡하는 구절은 "그래서 밀러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길고 마지막 예언적 기간이 곧 끝나려 한다고 선포했다"는 대목인데, 그들은 이것이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년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재림주의의 자체 역사서들에 따르면, 300명의 밀러파 설교자들은 모두 설교와 강연에서 1843년 개척자 도표를 사용했으며, 그 도표와 다른 역사적 증언들에서도 '일곱 때'(이천오백이십 년)가 그들이 '곧 만료될' '가장 길고 마지막인 예언 기간'으로 지목한 예언이었음이 명백하다. 1863년에 그들이 '일곱 때'라는 기초석을 거절하며 반역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The Great Controversy'의 해당 구절에서 화이트 자매가 확립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맹목적으로 주장한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벨드사살은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며, 그들은 화잇 자매가 재림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으로 규정한 다니엘서 8장 13절과 14절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이해한다. 그 구절에서 다니엘이 나타내는 표상은 말세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사이에 구별을 분명히 하는데, 이는 그들이 1989년에 일어난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린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는데, 그 일은 참되나 정한 때는 오래였더라. 다니엘이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을 이해하였더라. 다니엘 10:1.

1절은 히데겔 강가에서 주어진, 12장에서 끝나는 그 이상의 시작이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의 봉함이 풀리는 것을 발견하며,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 일'과 '그 이상' 둘 다를 깨달은 것으로 묘사된 것은, 깨닫는 자들, 곧 '지혜 있는 자들'로 일컬어지는 이들과 연결되고, 반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곧 '악한 자들'로 일컬어지는 이들과 대조된다. 12장 10절에서 이 두 부류 사이의 구별이 표상된다.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될 것이며, 희게 될 것이며,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할 것이니, 악한 자들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다니엘 12:10.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고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깨닫다'로 번역된 단어는 9장 23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과 같은 단어이다. 그것은 히브리어 단어 'biyn'으로, 정신적으로 구별한다는 뜻이다. 악한 자들은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1절에서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지칭될 때 그가 이해하는 것으로 지목된 진리인 두 환상을 정신적으로 구별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1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언약 백성으로 지칭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두 환상을 이해하는 자들로 지칭된다. 예수님은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으로 설명하시며, 12장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2300년의 예언과 그것이 '가장 길고 마지막' 때의 예언, 곧 2520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호세아 4:6.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영적 집으로 세워져, 거룩한 제사장직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경에 또한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하신 보배로운 주된 모퉁잇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는 보배로우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넘어지나니,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진 자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5-10.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곧 구원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대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써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들을 말하였는데, 그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과 같이 그것들을 곡해하여 자기들의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미리 이것을 알고 있으니, 악한 자들의 그릇됨에 이끌려 여러분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15-17.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라. 주 앞에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아무 유익도 없는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 그것은 듣는 이들을 무너뜨릴 뿐이다.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자신을 드러내도록 힘써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은 피하라. 그런 것들은 불경건함을 더욱 키울 것이다. 디모데후서 2:14-16.